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8, pp. 152-160,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8.152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옥선[1], 방해순[2], 석말숙[3*]
[1]나사렛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2]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원장, [3]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on the Career Identiy of teenager using local child center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Adapting to School Life

Ouk-Sun Cho[1], Hae-Soon Bang[2], Mal-Sook Suk[3*]
[1]Lecturer,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zarene University
[2]Director, Children's Home in Samseong Village, Gunpo City
[3]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부모방임 및 학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1기 6차년도 패널 자료에서 419명을 추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대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은 방임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 방임, 학대, 진로정체감,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neglect and abuse of parents, a sub-factor of domestic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the career identity status, the mediate effects of adapting to school life in the process, and the control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using local children center service experience. To this end, 419 people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of the first year and sixth year of the children's panel at the local children's center.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neglect, a sub-factor of domestic violence damage experienc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mediation effect on youth's sense of direction. Second, adapting to school life are being partially mediate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lect of duty and career identit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necessary for the forming career identity for teenager using local child center and the basis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were derived.

Key Words : Neglect of Duty, Abuse, Career Identity, Adapting to School Life, The Mediation Effect

*Revised the announcement made at the 2018 Regional Children's Panel Competition. The theme of participating in the local children's panel competition is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on the Passive Stability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Adapting to School Life'.

*Corresponding Author : Mal-Sook Suk(swmalsuk@kornu.ac.kr)

Received January 14, 2020
Revised August 5,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1. 서론

청소년기는 인지·정서·사회·신체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달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때에 형성되는 진로정체감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의 가치관, 태도, 생활양식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1].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61%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이 중 45%는 학교를 떠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 39.4%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3.8%는 공부가 싫어서, 23.4%는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2]. 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미래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잡코리아와 알마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고 39.9%가 응답했으며, 38.9%는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은 21.5%로 나타났다[3].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청소년 시절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과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것,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를 선택 것 등을 꼽아 청소년 시기의 진로정체감 형성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란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의 목표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직업상[4],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인지 정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뜻한다[5]. 청소년 시기에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후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준비하기 위한 발달과업으로 생애주기 동안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 습득과 효과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여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Erikson[6]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의 하나의 유형인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7-9].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때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방식이자 자녀와 부모가 인지하고 표출하는 일관성 있는 반응양식을 의미한다[10]. 부모양육태도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가정폭력은 부모-자녀 간의 폭력으로 어느 사회에서 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양육방법이 다른 사회나 문화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자녀의 진로발달이 촉진될 수도 있고 저해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12-15],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16]. 또한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방임과 학대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부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양육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양육방식 이외에도 학교생활적응을 들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 내에서 학업 적응과 또래관계 및 교사와 바람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학교규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서 심리·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17-20].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20]에서 부모의 학대나 방임을 포함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교육을 방치하거나 무관심 할 경우, 자아가 불안한 청소년들은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성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20].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체계 안에서 동화되어 각각의 대상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양육 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2].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

한 적응상에서의 어려움 중 특히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있어 가정에서 사회로의 확장된 공간으로 교우, 교사 등과의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장이기 때문이다[23]. Rutter[24]는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중요한 개인의 발달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교실에서의 만족스러운 학습수행, 적절한 욕구성취는 아동의 성장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학대 경험 및 아동학대[24]로 인한 학교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몇몇 선행연구[24,25]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진로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인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생활적응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현실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진로정체성에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정체감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매개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를 지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진로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생활적응은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진로정체성 간에 어떤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방임, 학대 및 학교생활적응을 선정하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델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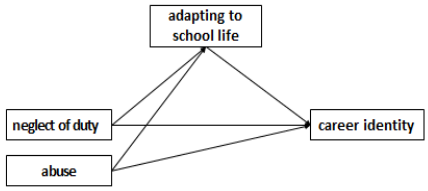

Fig. 1. Propsed Model

2.2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1기 6차 년도 패널자료이다.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에 부합하는 응답자 419명을 실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210명(50.1%), 성적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가 197명(47.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은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8명(35.3%)이고, 월평균 이용 아동 수의 경우는 '20-29명 이하' 178명(42.5%)로 나타났다.

2.3 측정도구

2.3.1 진로정체감 척도

진로정체감 척도에서는 Kong[26]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모두 역문항을 이루고 있어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값은 .871을 보여주고 있다.

2.3.2.1 부모방임척도

부모의 가정폭력 피해 척도의 하위요인인 방임척도는 Heo[27], Kim[28]이 개발한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것을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에서 사용한 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의 구성은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을 항상 깨끗하게 신경 쓰신다' 등의 방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서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방임의 Cronbach's alpha값은 .799를 보여주고 있다.

2.3.2.2 부모학대척도

부모의 가정폭력 피해 척도의 하위요인인 학대척도는 Heo[27], Kim[28]이 개발한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것을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에서 사용한 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활용하였다. 학대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심하게 혼내신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역변환하여 모두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학대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받은 경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측정에 사용한 내적일관성 Chronbach's alpha값은 .845로 나타났다.

2.3.3 학교생활적응 척도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중앙지역아동센터에서 Moon[29], Lee[30]의 척도를 참고하여 Min[31]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Jung[32]이 활용하여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반에서 맡은 당번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리커트 척도는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등 4점으로 구성되어졌다. 본 척도는 역변환하여 모두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측정에 사용된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alpha값은 .824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진로정체감에 대한 요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SPSS WIN21.1 프로그램이나 Amos 21.1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진로정체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의 하위요인인 방임, 학대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Amos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간접(매개)효과는 Bootstrap analysis로 하였다. SPSS에서 데이터 이상치를 점검하고 회귀대체 방식에 의한 결측값을 처리하여 이후 분석을 실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부모의 방임 평균값(sd)은 1.792(sd=.532), 학대의 평균값(sd)은 1.753(sd=.668),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sd)은 3.018(sd=.472), 진로정체감의 평균값(sd)은 2.817(sd=.617)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평균값이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판단되어 이후 분석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419)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1.00	4.00	1.792	.532	.332	.349
2)	1.00	4.00	1.753	.668	.889	.509
3)	1.00	4.00	3.018	.472	-.110	1.023
4)	1.29	4.00	2.817	.617	.191	-.496

1) neglect of duty 2) abuse 3) adapting to school life 4) career identity

3.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방임과 진로정체감($r=-.218$, $p<.01$) 및 학교생활적응($r=-.421$, $p<.01$)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r=.306$, $p<.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학교생활적응($r=-.218$, $p<.01$)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r=-.036$, $p>.05$)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r=.216$, $p<.01$)은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계수가 모두 0.5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306**	1		
3)	-.421**	-.218**	1	
4)	-.218**	-.036	.216**	1

**p<.01, 1) neglect of duty 2) abuse 3) adapting to school life 4) career identity

3.3 연구모형분석

3.3.1 확인적 요인분석

관측변수들의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가정폭력의 하위요인인 방임과 학대, 진로정체감을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한 측정모형의 결과 값은 Table 3과 같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초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로는 X^2=573.562, df=246, p=.000, SRMR=.049, RMSEA=.056, TLI=.909, CFI=.919 등의 결과로 나와 모형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R^2 값이 0.1보다 낮은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문항을 각 1개씩 제외하자 모두 R^2값이 0.3 이상의 값을 보여 최종모델로 결정하였다. 최종모델의 적합도는 X^2=405.578, df=208, p=.000, SRMR=.049, RMSEA=.049, TLI= .937, CFI= .945의 값으로 나타나 초기 모형보다 적합도도 향상됨을 볼 수 있다.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x^2	df	p	SRMR	TLI	CFI	RMSEA
first model	573.562	246	.000	.049	.909	.919	.056
final model	405.578	208	.000	.049	.937	.945	.049

3.3.2 구조모형 분석

구체적으로 각 요인 간 경로계수를 Table 4에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의 하위요인인 방임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ß=-.474, t=-6.459, p<.001). 즉,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수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학습,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돌봄에 있어 관심이 낮고 방임할수록 청소년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적응력도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타 이용 청소년의 부모방임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ß=.162, t=2.303, p<.05).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력이 높으면 자신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학교에서 친구관계, 교사관계 및 학습태도가 좋으면 자신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방임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 형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91, t=-2.605, p<.01). 즉, 부모로부터 방임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학대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ß=-.090, t=-1.507, p>.05)과 진로정체감(ß=.072, t=1.216, p>.05)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E.	C.R.
Neglect of duty	→	Adapting to school life	-.463***	-.474	.072	-6.459
Adapting to school life	→	Career identity	.216*	.162	.094	2.303
Neglect of duty	→	Career identity	-.250**	-.191	.096	-2.605
Abuse	→	Adapting to school life	-.066	-.090	.044	-1.507
Adapting to school life	→	Career identity	.216*	.162	.094	2.303
Abuse	→	Career identity	.070	.072	.058	1.21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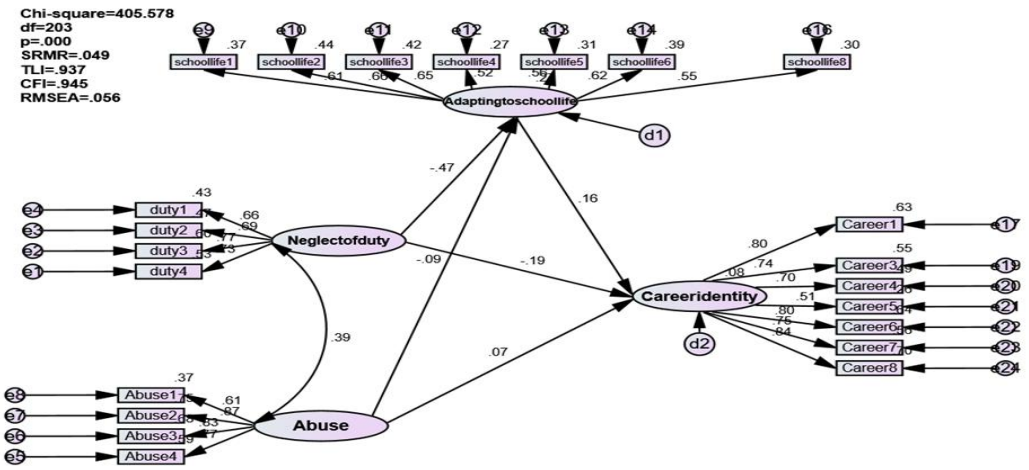

Fig. 2. Structure Model

Fig. 2에서 최종 구조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2=405.578, df=203, p=.000, SRMR=.049, RMSEA=.056, TLI=.937, CFI=.945의 값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적정 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변수와 질문 문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을 보여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3.3.3 연구모형 효과분해

Table 5는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하고 선행변인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5미만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방임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직접효과가(ß=-.474)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정체감에 직접효과가(ß=.162)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방임은 진로정체감에 직접효과가(ß=-.191) 있고, 간접효과(ß=-.077), 총효과(ß=-.268)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방임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교생활적응의 간접효과를 볼 수 있다. 즉, 학교생활적응이 부모방임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방임은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방임이 진로정체감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Neglect of duty	→	Adapting to school life	-.474		-.474*
Adapting to school life	→	Career identity	.162		.162*
Neglect of duty	→Adapting to school life	→Career identity	-.191**	-.077*	-.268*

*p<.05, **p<.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에 따른 진로정체성에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정체감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과 조절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이 진로정체감을 낮춘다는 기존의 연구[16,33]와 일치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지향·성취지향 목표와 부적상관을 보이는 Kim[34]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Han[3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목표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방임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융복합시대에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일치하며[35],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방임은 진로정체성에 있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연구와도 일치하며[9], 학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1]에서 부모의 학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타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일반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36]에서도 부모의 학대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에게 부모의 학대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상호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가정 방임 경험의 자녀처럼 특수한 대상층을 위한 특성화된 진로정체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방임의 부모는 일반의 부모들에 비해서 자녀의 진로지도 및 지지가 부족하다[36]. 따라서 방임 청소년 및 특수 대상층에 진로교육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부모의 부재로 나타날 수 있는 진로정체감의 혼선을 예방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련 직업분야의 상시 위탁반 운영, 자신의 삶의 목표와 능력 및 욕구를 찾아내는 상담프로그램 상시 운영, 관심 분야 학교 선배와의 멘토링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방임된 청소년과 부모-자녀 간에 있어 관계의 개입, 직업 관련 관심 분야 명장 초청 강의, 진로 박람회 개최 등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험활동 개발과 참여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은 청소년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 관련 부분에 노출시키고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해 진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법 시행[37]으로 거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이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충분한 배치로 내실 있는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또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안한다. 거제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으로 '핵인싸 선배짱', '멘토랑 멘티랑' 같은[35] 대학생 선배들의 검정고시 고득점 및 대학 합격을 통한 학업역량을 위한 자발적 재능 기부 및 '핵인싸 선배짱'의 중국어・베트남어의 외국어반과 '멘토랑 멘티랑'의 검정고시 입학 청소년의 1:1 학습지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을 제안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과 정책 마련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및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학교생활적응과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 양적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적연구와 혼합하여 학대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J. C. Lee. (1994).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the Way to Advance Career Education. *Research on Career Education, 2,* 80-119.

[2] http://www.mogef.go.kr/

[3] SBS NEWS. (2019). *2 Out of 5 College Students "Regret to Choose another Major"*(Online) https://news.sbs.co.kr

[4] J. L.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Vocatio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120. DOI : 10.1037/h0077731

[5] M. S. Choi. (2015). *The Difference of Career Identity by the Level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6] E. H.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 W. Norton.

[7] J. Y. Park & H. S. Jung. (2016). Effects of Late Parenting Attitudes on the sense of Career Status by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Lifelong Society, 6(1),* 21-37.

[8] P. H. Dyk. (1990). *Family Relations Factor that Facilitate or Inhibit Middle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Utah State.

[9] H. R. Hwang & E. H. Lee & S. R. Lee. (2018). The Influence of the Abuse and Obligation of late Parents on the Passive Stasis: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Goal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30(1),* 195-216.

[10] Y. J. Kwon.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9(39),* 177-204. DOI : 10.20993/jSSW.39.8

[11] S. M. Song.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hood Violence Victims on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 Doctoral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Gunpo.

[12 J. Y. Park & H. S. Jung. (2016). Effects of Late Parenting Attitudes on the sense of Career Status by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Lifelong Society, 6(1),* 21-37.

[13] J. E. Park. (2007).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Child Care Attitude and Attachment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elf-respect and Pathology of Their Children.* A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14] Y. J. Song.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Self-identity, and Aesthetics in Middle School Students.* A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15] J. S. Jang.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sive Status and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to Parents. 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6] H. S. Lee & W. H. J. Sunwoo. (2015). A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a sense of Career in Adolescents: Self-identity, Parental Neglect. *The Study of Youth, 22(6),* 57-73.

[17] W. Y. Song & S. R. Kwak. (2006). A Research on Protection Factors Influencing on Teenager's School Adaptation.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18(3),* 107-129.

[18] G. W. Ladd, B. J. Kochenderfer & C. C. Coleman,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s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DOI: 10.2307/1132300

[19] R. E. Clifton & H. L. Yang.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riven Care Experience on the Adapting of School Life: *Focused on the Adjustment Effect of Youth Activities, 39(1),* 1-27.

[20] S. M. Song & J. A. Baek. (2016). The Effect of Parenting on the Adequation of Youth to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Korea Digital Policy Association, 14(10),* 327-337.

[21] Y. G. Choi & S. M. Yoo. (2014). The Effect of Child Care Environment, Self-elastic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Life Satisfactio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rain Education Research, 14,* 125-149.

[22] E. H. Lee & S. O. Jung. (2006). The Interaction of Self-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Friendly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Parents Delayed by Youth: The Structural Analysis of Covariate. *Korean Youth Research, 17(2),* 213-239.

[23] J. H. Jung & Y. A. Ah. (2016). A Study on the Control Effect of Local Children's Center Support in the Experiences of Pee-Abschool and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in Lee Yong-dong of Local Children's Center. *Journal of School Social Welfare, 34,* 17-43.

[24] M. Rutter.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6),* 598-611.
DOI : 10.1192/bjp.147.6.598

[25] S. J. Sung. (2010).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Adapting to School Life of Teenagers.* A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6] I. G. Kong. (2008). *Effects of the Holland Career Search Program on the Maturity of Learning Children, Their Effectiveness, Their Sense of Career Identity, and their Disability.* A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7] M. Y. Heo. (2000). *A Study on the Indicators of Parents' Childhood Behavior for the Late Childhood.* A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28] S. W. Kim. (2003).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Adaptation of Experienced Children.* 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9] S. M. Moon. (197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Background and Adapted to School. *A Study on the Student Map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4,* 19-28.

[30] S. P. Lee. (1990).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evel of Adapting to School Life. A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31] B. S. Min. (1991). *The Influence of Adapting to School Life and Self-Concepts on Academic Performance.* An Unpublished Thesis on Master's Degre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Seoul.

[32] H. S. Jung.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on the Optimis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33] Y. A. Son, S. J. Shin & E. R. Son. (2014). A Study on the Variety Influencing on the Passive Statu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earch on Career Education, 27(1),* 109-125.

[34] M. J. Kim. (2013).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Problem Behavior of Young People: Focusing on Objectives Instabilit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Lifetime Objectives.* A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35] H. J. Han. (2015).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Satisfaction of Children's Life and the Mediation of Life Goals.* A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Wanju.

[36] H. R. Hwang, E. H. Lee & S. R. Lee. (2018). The Abuse of Parents Late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 of Negligence on Career Dependency: The Mediated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Objective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1),* 195-216.

[37] http://www.law.go.kr

조 옥 선(Ok-Sun Cho)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장애
· E-Mail : sun16070@naver.com

방 해 순(Haesoon Bang) [정회원]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박사)
· 1999년 9월 ~ 2013년 1월 : 새샘어린이집 원장
· 2014년 7월 ~ 현재 : 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가족, 영유아, 여성
· E-Mail : newsaem@hanmail.com

석 말 숙(Mal Sook Su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1998년 1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School of Social Welfare (M.S.W)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4년 9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 가족
· E-Mail : swmalsuk@kornu.ac.kr